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사 씨가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종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소이고, ㉡은 사 씨가 친정이 있는 장소이다.
- ② ㉢은 ㉣에 이르기 위해 경유해야 하는 장소이고, ㉣은 유씨 집안만이 거쳐하는 장소이다.
- ③ ㉡은 사 씨가 원래 향하려 했던 장소이고, ㉣은 사 씨가 자신의 시아버지에 대한 효를 다하기 위해 가려 하는 장소이다.
- ④ ㉣은 사 씨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변에 초가집 한 채를 구하여 머무려 하는 장소이다.
- ⑤ ㉠은 사 씨와 자신의 아들과 이별하게 되는 장소이고, ㉣은 사 씨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는 장소이다.

29.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사 공자의 사 씨의 결정에 대한 충격은, [B]에서 사 씨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 충격이 더 격앙되고 있다.
- ② [A]에서 사 공자는 사 씨에게 이유를 묻고, [B]에서 이는 유씨 집안에서 지은 죄에 대한 참회를 위한 것임이 확인된다.
- ③ [A]에서 사 공자의 충격은, [B]에서 사 씨의 결정이 유 소사 부자에게 받은 후대에 보답하기 위한 것임을 듣고 완화된다.
- ④ [B]에서 드러난 사 씨의 염원은, [C]에서 교 씨의 시기와 증오로 인하여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임이 드러난다.
- ⑤ [C]에서 교 씨가 주장한 사 씨의 더러운 행실에 대한 사 씨의 반성하는 태도가 [B]에서 드러나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근대 이전의 사회는 장남이나 선정된 후계자만이 가문의 모든 것을 갖는 가부장제 사회였다. 당시, 「사씨남정기」에서는 중국 명 대의 양반 사대부인 유 한림의 가정에서 벌어진 처첩 간의 갈등을 통하여 축첩 제도와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이를 통하여 선과 악의 구도가 명확히 드러나며 권선징악의 결말을 맺는 가정 소설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소설의 유형을 제시한다. 그러나, 사 씨의 성격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묘사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봉건적 도덕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가의 한계가 드러난다. 또한, 「사씨남정기」는 조선 숙종 대의 왕비 폐위 사건에 대응하여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사 씨는 인현왕후에, 교 씨는 희빈 장씨에 대응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왕비 폐위의 부당성을 드러내고,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숙종의 잘못을 일깨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작됐음이 드러난다.

- ① 유 소사와 자신의 어머니에 죽음에 대해 며느리와 딸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아와 이별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데서 사 씨의 이상적인 성격이 드러나는군.
- ② 유 한림이 아들을 얻기 위해 정실 부인이었던 사 씨 외에 교 씨를 첩으로 들이고, 이후 사 씨가 아들을 얻자, 교 씨가 사 씨를 포함한 데서 가부장제와 축첩 제도의 문제가 드러나는군.

- ③ 사 씨는 집안에서 쫓겨난 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묘 근처로 가고, 교 씨는 사 씨를 모함하고 쫓아낸 데서, 당시 선과 악의 구도가 명확히 나타나는 가정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는군.
- ④ 교 씨가 시비에게 명을 내리는 데서, 희빈 장씨를 왕비로 삼았음이, 옛사람도 잊지 말아달라는 사 씨의 호소에서, 당시 인현왕후가 백성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는군.
- ⑤ 「사씨남정기」에서 유 한림이 사 씨를 내쫓고 교 씨를 정실 부인으로 삼은 것과 조선 숙종 대의 왕비 폐위 사건과 관련된 것에서, 당시 숙종이 본처인 인현왕후를 부당하게 폐위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이 드러나는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워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져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녀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삼십(三十) 리면
가로막히고

㉠무인공산의 적막만이
천만군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北)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올려오는 포성 몇 방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구상, 「초토의 시8- 적군 묘지 앞에서」-

(나)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속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
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㉔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㉕아름다운 길은 이 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박봉우, 「휴전선」-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영탄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애통함을 드러낸다.
- ② (나)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화자가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어 화자가 도래하길 원하는 사회상이 드러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비슷한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시에 운율감을 부여하고 있다.

32. ㉔, 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으로, ‘북으로 흘러가’는 구름 같이 화자가 자유롭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㉕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국토를 나타내며, 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③ ㉔는 구름의 이미지를 통하여 전쟁 중에도 유지되고 있는 민중의 삶을 드러내는 대상이고, ㉕는 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잊히지 않는 자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④ ㉔는 당시 민족 분단의 현실에서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없는 민중과 달리 자유로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대상이고, ㉕는 ‘마주 향하는’ 특성을 통해 민족 분단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⑤ ㉔는 ‘나’가 추모하는 전쟁에서 죽은 청년들의 넋을 드러내는 대상이고, ㉕는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대립하여 일어난 전쟁이 진행되었던 우리 국토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33.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사람이 살지 않는 적막한 지역과 구체적인 수치를 드러내어 현실에 대한 적막감과 허탈함을 강조한다.
- ② ㉒: 화자는 적군 묘지 앞에서 사랑과 미움을 모두 느끼고,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드러난다.
- ③ ㉓: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치른 후 얻은 잠깐의 평화를 나타내며, 화자는 이러한 평화를 지향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 ④ ㉔: 별들이 차지한 하늘의 특성을 통해 화자가 지닌 통일에 대한 염원과 통일의 당위성이 드러난다.
- ⑤ ㉕: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하는 민족 현실에 대해 방어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회의감이 드러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현실을 한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현대시가 발견된다. (가)는 지금의 현실을 ‘초토’로 인식하여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고 전쟁으로 인한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드러난다. (가)에서는 아군과 적군이라는 구분을 넘어 전사자의 원한을 자신의 바람에 담고 그들을 추모하는 모습이 보이며 이를 통해, 전쟁 속의 이념적 대립의 허망함과 애증의 차원을 넘는 죽음의 신비로움을 드러내며, 민족의 상처를 치유한다. (나)에서는 분단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로 인한 민족의 쇠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통일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① (가)의 적군 시체의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고이 파묻어 때 마저 입혔’다는 데서 죽음은 미움을 초월하는 너그러운 사랑과 경건한 존재라는 인식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생명의 숭고한 가치와 이념적 대립의 허망함을 드러내는군.
- ② (나)의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은 남한과 북한이 이후에 또 다른 전쟁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근심을 드러내는군.
- ③ (가)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은 데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태도를, (나)의 ‘나무’도 안심할 수 없는 ‘광장’은 전후의 피폐한 현실을 드러내는군.
- ④ (가)의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이’ ‘가로막’혔단 것과, (나)의 ‘정맥이 끊어진 채 휴식’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당시 전후 우리 민족이 직면해야만 했던 민족 분단의 현실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방아쇠를 당기던’ 현실과, 계속해서 들려오는 ‘포성 뿔발’을 통하여 국토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나)의 ‘천둥 같은 화산’을 통해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